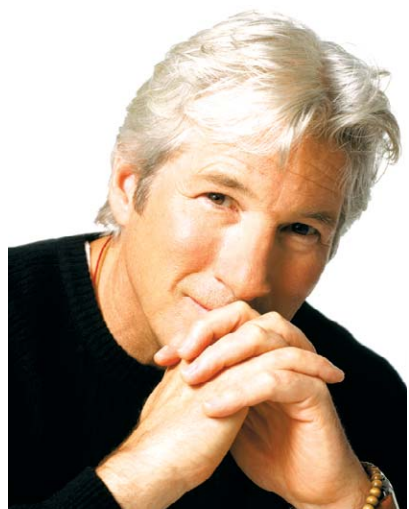


# 리처드 기어 “30년 중 사흘만 수행 못해... ‘나’ 비우려 노력”



## 리처드 기어 현학을 만나다

### 불교TV 주선, 뉴욕 맨해튼에서 특집 대담

승산 스님의 푸른 눈 상좌로 알려진 현각 스님(43·사진 오른쪽), 그가 세계적인 영화 배우 리처드 기어(58·사진 왼쪽)를 만났다. 리처드 기어는 ‘미스터 굿버를 찾아서’ ‘사관과 신사’ ‘귀여운 여인’ ‘시카고’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현각 스님은 저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 선불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둘은 서양인이라는 것 외에 미국의 전통적인 개신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성인이 된 후 불교의 매력에 빠져 수행 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불교를 공통분모로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현각 스님은 출가자의 모습으로 한국 선불교를 경험했고, 리처드 기어는 재가자의 모습으로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 있다. 세계 자본주의 중심이며 현대 문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불교TV의 주선으로 뉴욕 맨해튼 리처드 기어 개인 사무실에서 만난 이 서양인 불자들의 30분간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 눈푸른 이 두 불자의 대담을 듣다 보면 한국 불교가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듯하다. 11월 13일 방영된 두 사람의 만남을 다룬 불교TV 특집대담 ‘리처드 기어 현학을 만나다’의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 ▲불교와의 만남

현각: 불교의 매력에 빠져 수행 하다 어느 순간 스승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승산 스님을 뵈고 그분의 시자로 살면서 집중 수행을 시작했다. 100일 안거, 90일 안거 등 선 불교 스타일로 수행하며 ‘나’라는 존재를 오롯이 현신한 채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기어: 나는 그리스도교적 환경에서 자랐다. 특히 개신교중 감리교도인 아버지는 목사나 다름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탓에 나는 아버지와 다른 종교이지만 자신의 정신을 탐구하는 종교인 불교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됐다. 내게 있어 불교는 자연에 의지하는 농부의 연속함라고 같은 가르침이었다. 그 연속함이란 나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마음, 나는 햇빛을 만들 수 없으며, 그저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선불교의 특성이야 생각한다.

#### ▲선불교에서 티베트 불교로

현각: 리처드 기어, 당신은 본래 선불교에 입문했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쳐내면서 화두를 참구하며 사고(思考)가 일어나기 이전 마음의 본성을 직접 바라보는 공부로 했다. 그러다가 당신은 티베트의 가르침에 이끌렸다. 티베트 가르침의 무엇이 당신을 선수행에서 히말라야 불교로 이끌었는가?

기어: 선불교가 좋았던 것은 매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행법을 선불교의 엄격한 스타일로 경험하니 수행하는 습관이 붙게 됐다. 수행을 하다보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본다는 것은 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 달라이 라마를 인도에서 만났고, 그 순간 나는 커다란 자비심을 느꼈다. 물론 선수행에도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한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마추함은 바로 무아를 성취하는데 매우 직접적인 방식이다.

#### ▲정신적 스승 달라이 라마는

현각: 나는 선승으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불교를 만났고 특히 유럽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목격했다. 불교의 많은 전통 중에 나라를 잃어 특별한 후원도 없는 티베트 불교가 환영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어: 가장 큰 요인은 달라이 라마다. 현각: 달라이 라마 한 개인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보는가?

기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달라이 라마는 그 어떤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그는 소통에 있어 매우 지혜롭고 자재하다. 이것은 위대한 스승만이 갖춘 품성이다. 우리 시대에 많은 스승과 불교의 스승들이 있지만 그 누구와도 그렇게 지극히 단순하고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달라이 라마는 당신이 영어를 모른다 해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의 유머, 극도의 단순·소박함이 중요한 장점이며 불교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잘 설명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양한 가르침에 속한 많은 스승들을 접했지만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은 천년에 한번 있을 희유하고 복된 일이다.

#### ▲수행은 곧 삶

현각: 당신은 일상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는가?

기어: 나는 반드시 하루를 수행으로 시작한다. 수행을 통해 나의 참마음이 보편적이며 전혀 개인적이지 않다는 통찰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 30년동안 단 사흘만 수행을 못했다.

수행을 하며 느끼는 것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수행이고 그런 수행이 무한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세상 속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가능성들에 대해 약간의 조절기능만 갖추면 족하다. 그리고 한 순간 ‘아, 내 생각은 이리로 가고 있구나!’ ‘아, 내 감정이 그리로 향하고 있구나!’하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부정적이면 좋게 전환시키고, 긍정적이면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매우 중요한 수행이다. 또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역시 무아를 닦는 강력한 수행이다. 인쇄 심역시 혼자 있을 때보다는 가정에서 훨씬 더 무아를 기를 수 있다.

#### ▲사홍서원

현각: 사홍서원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묻고 싶다. ‘첫째, 중생이 수도 없지만 모두 견지오리다.’ 이것을 당신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기어: 동기가 중요하다. 언젠가 달라이 라마가 기도에 대해 법문할 때 ‘기도는 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들에게 있어 있는 수많은 중생을 어떻게 구하겠나라고 기도하겠는가?’라고 물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그냥 서원을 말하라’고 했다. ‘먼저 그 말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말하라.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너의 마음이 그 생각으로 꼭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현각: ‘둘째, 번뇌가 끊이지 않으면 전부 굶으리다.’ 이것을 어떻게 일상속에서 실천하는가?

기어: 성숙이 관건이다. 그 무엇도 단 하나도 우리가 집착해야 하거나 항상하는 것은 없다. 약간만 훈련하면 사고와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훈련을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사고와 감정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

현각: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나가 되어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기어: ‘셋째, 법문이 한이 없지만 모두 배우오리다.’

기어: 우리는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무아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관건이고, 감정적으로는 인내심이다. 나와 남을 향한 인내심 그리고 자비심.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다. 나는 수행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관대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현각: 마지막으로 ‘불도가 드넓지만 기어 다 이루오리다.’ 이 서원은 당신에게 매일 무엇을 하게 하는가?

기어: 불법이 개념화되었다면 그건 분명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습과 마찬가지로 기습이 필요하다.

피아노가 무엇인지, 내 손가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배어나올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어떻게 동기가 부여되는지,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 노래가 피아노에서 나올 때, 나의 생명력이 몸에서 나올 때 그것이 남과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궁극적으로 전 우주가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

### 특집대담 - 불교TV 김준연 PD(사진)

특집대담 ‘리처드 기어 현학을 만나다’는 원래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대담하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11월 중순 불교TV에서 방영 예정인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케츨’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불쑥 튀어나온 아이디어로 기획됐다.

과정은 이렇다. 나왕케츨 주변 인터뷰를 찾던 중 그와 리처드 기어가 절친하다는 것을 알았다.

리처드 기어는 1991년 미국 뉴욕의 티베트하우스로 나왕케츨을 초청해 공연을 열었다. 이후 기어와 나왕케츨은 절친한 사이가 됐으며, 나왕케츨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리처드 기어는 물심양면으로 그를 후원해왔다. 그래서 나왕케츨 다큐

### 각별한 ‘불교 사랑’ 덕에 리처드 기어 인터뷰 성사

를 위해서는 리처드 기어의 인터뷰가 필요했다. 8월부터 리처드 기어 프로젝트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불자인 리처드 기어와 현각 스님의 대담을 기획하면 불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시 현각 스님에게 취지를 전화로 알려 드렸더니 스님은 흔쾌히 허락하셨다.

인터뷰는 9월 12일 한국에서 함께한 현각 스님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리처드 기어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리처드 기어는 불교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바쁜 일정 때문에 인터뷰하기 힘들었을 거란 얘기를 했다. 그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불교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불교가 영화보다 더 큰 삶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달라이 라마를 많이 만나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정도라고도 했다. 인터뷰는 주로 현각 스님이 묻고 리처드 기어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터뷰를 마친 후 현각 스님은 “그가 갖고 있는 불교적 지식과 수행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수행자적인 품목이 많이 느껴졌다”고 피력했다.



리처드 기어와 대담을 하고 있는 현각 스님(사진 왼쪽). 사진제공=불교TV



#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초6·중·고 1, 2, 3학년 (남경중의약대학부속삼학당학교)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비선 80명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2명	

- ####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 ####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학당학림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이정희(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 ▲박영문(영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현(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 ▲황진영(유성여고) ▲이정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경고) ▲이상훈(성신고)
  - ▲박민수(화서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취문고)
  -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 석사과정 합격자 명단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 광 대 한의대학
- 대 전 대 한의대학
- 삼학불교 대학림